

2 뉴스

유학생 수
5년 연속
증가

이수현 기자 dltngus011208@khu.ac.kr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과정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 수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 학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기준은 3,221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82명 증가한 수치로, 453명 증가했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글로벌입학팀은 이를 외부 요인인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와 내부 요인인 우리학교의 국제적 평판도 상승 등의 복합 작용으로 설명했다. 글로벌입학팀 관계자는 “한류 열풍과 이로 인한 관심 증가로 한국 유학 시장이 확대됐다”며 “우리학교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 국제화 노력에 대한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제 신뢰도가 제고된 덕분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방식이 체류비용 부담, 시간의 제약에서 가지는 강점과 우리학교 한국어 시험과 입시 면접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돼 우리학교 입시 지원에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 또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대폭 감소했던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또한 지난해 기준 소폭 상승했다. 교환학생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 감소해왔지만, 어학연수생과 기타연수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한 상태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우리학교에서 해외로 파견된 교환학생 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교류처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대학으로 파견된 교환학생 수는 이번 학기 119명으로, 20여 명에 불과했던 2020년 2학기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또 오는 2학기 해외 파견 예정인 교환학생 수는 237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학년도 2학기 154명보다 더 많은 학생이 해외로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2023학년도 1학기 파견 교환학생 신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1일 자정까지 경희대학교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Hospitality 경영학부	호텔경영학과	Hospitality 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조리&푸드디자인학과	
관광학부	관광학과	관광·엔터테인먼트 학부	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호텔관광대학 학사 편제 개편 (* 관광학과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는 2025년도에 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로 통합)

호관대 학사 편제 개편
학과명·체제 변경 예정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서울】호텔관광대학(호관대)가 2023년도부터 적용할 교육편제를 대폭 개편했다. 기존에 호관대는 Hospitality경영학부(▲호텔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관광학부(▲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조리산업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로 학과 체제를 운영해왔다. 이번 편제 개편으로 조리산업학과와 문화관광산업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체제가 달라질 예정이다.

Hospitality경영학부의 호텔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는 ‘Hospitality경영학과’로 통합된다. 학과 통합의 이유는 중복과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외식경영학과와 ‘외식수익경영’과 호텔경영학과와 ‘수익경영론’, 호텔경영학과와 ‘IT와 Hospitality

산업’과 컨벤션경영학과와 ‘Hospitality 정보기술활용’과 같은 과목은 개설 주체는 다르지만 비슷한 수업 내용으로 수렴됐다. 이러한 중복과목은 ▲학과별 진로 특색의 모호성 ▲전공과목 수강신청의 어려움 ▲교강사 수업분배와 수업방식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호관대는 이러한 중복과목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 개의 과를 한 개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조리·서비스경영학과는 Hospitality경영학부에서 독립해 조리&푸드디자인학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앞선 외식경영학과 등 3개 학과와는 달리 실습교육에 대한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는 학과 특성 때문이다.

관광학부의 경우 기존 학부 체제를 가져가면서 ‘관광·엔터테인먼트 학부’로 명칭이 달라지며 관광학과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로 나뉘게 예정이다. 이어 2025학년도에는 다시 두 학과가 ‘관광·엔터테인먼트 학과’로 통합될 계획이다.

호관대에 따르면, 이번 편제 개편으로 해당 학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과 명칭만 변경된다. 졸업증서에 표기되는 학과명에 대해서는 호관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22학번을 포함해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개편 이전 학과명과 개편 이후 학과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졸업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관대는 현재 ‘호관대 학사 편제개편 TF’를 개설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호관대는 “학과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개편방향, 학사제도 운영 방향에 관해 킥오프(Kick-off)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대산업과 관광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와 이러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이

추가돼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편제 개편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호관대 호텔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우려도 됐지만 중복과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납득이 간다”며 “학생회 측의 자료를 보고 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편제개편의 진행사항을 학생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때그때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호관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B씨는 “Hospitality경영학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다양하게 들으면서 통합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인데, 문화관광콘텐츠학과는 경우 커리큘럼이나 사회 인식을 생각했을 때 문화관광콘텐츠라는 이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는 학과 특성을 드러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B씨는 “학과명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전문성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